



POSTECH, 신소재공학과 백승미 씨 'NanoSPD7 젊은 연구자상' 수상

타이타늄의 강도를 높여 활용 가능성을 증명

기사입력 2017.07.25 17:55:40 | 최종수정 2017.07.25 17:55:40 | 김태우 | relaw89@hanmail.net



▲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백승미 씨(오른쪽).

POSTECH(포항공대, 총장 김도연)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백승미(지도교수 김형섭) 씨가 '강소성공정을 통한 나노재료학회 (NanoSPD7,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materials by Severe Plastic Deformation)'가 선정하는 '젊은 연구자상'(Young Researcher Award)을 수상했다.

백승미 씨는 '제어된 집합조직을 지니는 에칭된 초미세 결정립 타이타늄의 전조골세포 반응'이란 논문을 발표해 타이타늄의 강도를 올리는 기술과 함께 집합조직을 이용한 타이타늄의 활용 가능성을 증명해 화제가 됐다.

'NanoSPD7 젊은 연구자상'은 35세 이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박사 취득 후 3년 이내 과학자들 가운데서 나노재료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한편 이 연구는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3월에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백승미 씨가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한 NanoSPD7 수상식은 지난 6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다.

김태우 (relaw89@hanmail.net)

© 2004~2016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
